

장기간 지속된 파행성 아급성 갑상샘염 증례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내과¹,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²황가영¹, 조윤영²

아급성 갑상샘염은 보통 3개월이면 종료되고 반대 엽으로 옮겨가는 파행성 갑상샘염은 1/3에서 발생, 이 역시 3개월이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저자들은 병변 부위가 이동하면서 장기간 치료를 지속했던 아급성 갑상샘염 사례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46세 남자환자 한달 전부터 전경부 통증으로 NSAIDs 복용했으나 호전 없고, 3주 전부터 발열, 오한 동반되어 내원하였다. 초기 혈액검사에서 ESR 116로 상승하였고 T3 2.56ng/mL, free T4 3.02ng/dL, TSH<0.05uIU/mL로 갑상샘증독증 소견 보였으며 갑상샘관련 자가항체는 모두 음성이었다. 경부CT결과 갑상샘 좌엽에서 협부, 우엽 일부까지 저밀도, 미세한 조영증강 보였고 양측 level 6에서 반응성 임파선들 보였다. Tc-99m스캔에서 양측 갑상샘염 모두 방사능섭취율 2% 미만으로 저하되어있었고 초음파에서 양측 갑상샘염, 특히 좌엽에서 더 저명한 저에코, 비균일 병변 보였다. 일주일 간 프레드니솔론 20mg/day 복용 후 T3 0.90ng/mL, free T4 1.55ng/dL, TSH<0.05uIU/mL, ESR 30으로 감소하였고 전경부 통증 및 발열 호전 추세 보였다.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프레드니솔론 5mg씩减量하여 한달 만에 중단하였다. 아급성 갑상샘염 초치료가 종료된 지 2개월 후 시행한 초음파에서 우상극에 장경 0.8cm 크기의 불규칙한 경계, 저에코, 종괴성 병변 확인되어 FNA 시행, 양성 결과 얻었고, 그로부터 1개월 후 초음파에서 장경 1.8cm로 크기 커지며 아급성 갑상샘염 재악화 소견 보여 다시 NSAIDs 투여, 3주 만에 호전되었다. 이후에도 7개월간 전경부 통증의 호전, 악화 반복되었고 초음파에서도 아급성 갑상샘염으로 보이는 병변이 이동하면서 호전과 악화 반복하였다. 초치료 이후의 통증은 NSAIDs에 효과가 있어 7개월 간 외래추적관찰하였다. 아급성 갑상샘염은 발열, 통증의 급성기가 3개월을 넘지 않고 재발률 1% 정도로 드물다. 본 증례는 프레드니솔론 및 NSAIDs 치료 시행에도 불구하고 7개월간 병변 이동하며 호전과 악화 반복한 경우이다. 다른 질환과 감별 위해 초음파 및 FNA 시행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